

한국형 녹색분류체계로 기업 탄소중립·친환경 활동 투명하게 보여준다

- 기후부,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금융기관·비금융기관 5개사와 녹색분류체계 기반 정보공개 지원 업무협약 체결

기후에너지환경부(장관 김성환)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(원장 남광우)은 4월 30일 엘더블유(LW)컨벤션(서울시 중구 소재)에서 녹색분류체계 기반 정보공개 참여 5개 기업*과 ‘지원 업무협약’을 체결한다고 밝혔다.

* LG에너지솔루션, LS전선, 삼성SDS, 우리은행, 효성중공업

이번 협약은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(K-Taxonomy)를 활용하여, 자사의 탄소중립·친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게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이를 통해 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정보공개 창구를 통해 녹색 경제활동과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, 시장과 투자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.

최근 주요국에서는 기업이 기후·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투자자에게 일관된 기준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. 유럽연합의 경우, 녹색분류체계(EU Taxonomy)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녹색자산비율(GAR), 비금융기관의 매출액·자본적지출(CapEx)·운영지출(OpEx) 등 녹색경제활동 관련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.

국내에서는 2021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한 이후, 기업·금융기관 등이 이를 녹색투자의 나침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. 일부 선도적인 기업은 이미 자율적으로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으며, 향후 기업이 자율적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응할 수 있다.

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기업의 녹색분류체계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,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.

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기업 5개사는 경영활동 중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활동을 식별하고, 이를 녹색 매출액, 녹색 자본적지출(CapEx) 등 성과지표로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검토한다. 아울러,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하여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정보공개 사례를 도출한다.

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“기업이 녹색경제활동 및 전략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시할 때, 투자자도 그 기업의 전환 방향을 더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”라며, “자본의 흐름이 우리 경제의 녹색 대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활용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행사 개요. 끝.

담당 부서	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	책임자	과 장	염정섭 (044-201-6678)
		담당자	사무관	이민선 (044-201-6690)
	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	책임자	실 장	조기숙 (02-2284-1960)
		담당자	연구원	김소연 (02-2284-1982)

□ **협약식 개요**

- (목적)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기반한 정보공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, 녹색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
- (일시/장소) '26.4.30(목) 10:00~11:20 / LW컨벤션(서울 중구)
- (참석기관) 기후에너지환경부, 한국환경산업기술원, 참여기업 5개사*
* LG에너지솔루션, LS전선, 삼성SDS, 우리은행, 효성중공업
- 세부 일정(안)

시 간	식 순
10:00-10:05('5)	○ 개회 및 참석자 소개
10:05-10:25('20)	○ 인사말씀(기후부·기술원·참여기업)
10:25-10:35('10)	○ 녹색분류체계 정보공개 컨설팅 지원사업 소개
10:35-11:05('30)	○ 간담회(녹색분류체계 활용방안 논의 등)
11:05-11:15('10)	○ 협약서 서명
11:15-11:20('5)	○ 기념촬영 및 폐회

□ **주요 내용**

- (협약내용) 기업 대상 EU·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공시 컨설팅 지원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공시 활용 매뉴얼·사례집 개발을 위한 업무협력

